

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회
의 결 안 건 - 1호

201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
[주요정책 부문]

2020. 1.

중소벤처기업부

중소벤처기업부

I. 평가개요

□ 평가대상 : `1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35개 관리과제

□ 평가지표

평가지표	배점	측정방법	비고
1. 성과지표 선정의 적절성	10	관리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성과지표 선정 여부	정성
2. 추진일정의 충실성	35	추진일정 준수율	정량
		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노력도	정성
		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, 객관성, 전문성 확보 노력	정성
		추진과정의 난이도 및 노력도	정성
		타 과(국) 및 부처 간 협업하여 추진한 실적	정성
3. 성과지표 달성도	25	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5단계로 구분하여 배점(달성도와 목표치의 적극성 수준을 고려)	정성/ 정량
4. 정책효과 달성도	20	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(성과목표) 달성에 기여한 정도	정성
5. 소통노력도	10	위원회 개최, 정보제공, 현장참관, 평가위원 정책제언, 전년도 평가결과의 개선사항	정량

II. 평가결과

(1) 총 평

□ 총 35개 관리과제 등급배정

◆ 매우우수 1개(2.9%), 우수 7개(20.0%), 다소 우수 6개(17.1%), 보통 10개(28.6%), 다소 미흡 5개(14.3%), 미흡 4개(11.4%), 부진 2개(5.7%)

- (우수 이상) '민간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확산', '창업전문기관 및 민간역량을 활용한 창업사업화' 등 8개 과제(22.8%)
- (미흡 이하) '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응역량 및 인식 제고', '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 촉진을 통해 역동적인 시장으로 육성' 등 6개 과제(17.1%)

< 평가 등급 비율은 '19년 국조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('19.1) 준용 >

평가 등급	1등급 (매우우수)	2등급 (우수)	3등급 (다소우수)	4등급 (보통)	5등급 (다소미흡)	6등급 (미흡)	7등급 (부진)	합계
비율 기준	~5% 이내	5%초과 ~20%이내	20%초과 ~35%이내	35%초과 ~65%이내	65%초과 ~80%이내	80%초과 ~95%이내	95% 초과	
과제 수(개)	1	6 (7*)	5 (6*)	10	6 (5*)	5 (4*)	2	35

* 최상위 1등급과 최하위 7등급은 순위 누적 기준선을 준수하되, 2~6 등급은 등급 기준선을 각 5%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(국조실 지침)

□ 성과지표별(총 45개) 목표달성도

-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5.4%로, 3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, 8개 성과지표*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

*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(20.7월 측정 가능),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 수(224개/250개, 89.6%), 특성화시장 매출액 증가율(8.79%/16.5%, 53.3%) 등

※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% 이상 달성한 경우에도 100% 달성한 것으로 간주

-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'19년 기준치 산정 불가', '대외적 경기환경에 따른 매출액 감소'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

(2) 주요성과 (우수 과제 중심)

◆ ‘창업전문기관 및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사업화’ 등 8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

① (I-1-②) 창업전문기관 및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사업화

○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단계 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으로 11,57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

* 신규 일자리창출 현황 : ('17) 5,941명 → ('18) 11,575명

*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창업성과(일자리·매출액 등)를 산출하므로 '19년 성과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'20.4월 이후 산출 가능

○ 창업기업과 해외 액셀러레이터 간 매칭을 통해 현지 보육(4~6주) 및 해외 법인설립, 투자유치 등 해외진출 지원

- '19년 6개국* 8개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국내 58개 창업기업을 매칭하여 현지 보육(최대 6주)을 통한 창업기업 지원

* 미국, 중국, 영국, 프랑스, 싱가포르, 베트남

☞ (평가위원) 창업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일정의 충실성,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등이 매우 우수

② (I-5-⑥)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확산

○ 사상최대 신규 벤처투자 달성 및 민간중심 투자생태계 조성

- '19년 기준,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은 4.3조원으로 '18년 전체 투자액 3.4조를 뛰어넘었으며, 사상 최초로 4조원 초과달성

* 벤처투자(조원) : ('16) 2.2 → ('17) 2.4 → ('18) 3.4 → ('19) 4.3조원

○ 유니콘 기업 급증

- 11번째 유니콘기업 탄생으로 유니콘기업 세계 6위 차지,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 가능

*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수(CBinsights) : (미) 212, (중) 101, (영) 22, (인도) 18, (독일) 12, (대한민국) 11, (브라질, 이스라엘) 6, (프랑스, 인도네시아, 스위스) 5개 순

☞ (평가위원)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조성 노력이 인정되며, 정책적 효과성도 우수

③ (Ⅱ-1-①)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

○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

- (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)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'19년 4,757개사(12월 말 기준)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

* ICT융합 스마트공장 사업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 12,660개사 이상에 대해 스마트화 지원('19.12월, 누계)

- (대중소 상생)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'상생형 모델'을 도입하여, 민간 중심의 스마트공장 구축 생태계 조성

* 삼성, 현대, LG, 포스코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에 자발적 참여 (9개 대기업 213억원 출연, 1,023개 지원 중)

☞ (평가위원) 추진계획을 성실히 수립·이행하였으며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 양성 인원수(성과지표) 달성수준이 높음

④ (Ⅲ-3-③) 원활한 구조개선 및 재도전 활성화 지원

○ 연대보증 면제 확대, 재도전 시책 추진 등에 따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수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 유지

* 실패 두려움 지수 (글로벌 기업가 정신 연구(GEM Global Report)) : ('16) 31.5% → ('17) 32.2% → ('18.) 32.8%

○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성과분석 결과, 공정불량률, 제조원가율, 생산납기준수율 지표에서 개선 효과 우수

성과 지표	컨설팅 전	컨설팅 후	성 과
공정불량률	4.38	2.38	2.00%p 개선
제조원가율	75.16	71.00	4.15%p 개선
생산납기준수율	91.96	95.78	3.82%p 개선

* 2019년 컨설팅사업(특화형, 규제대응 분야) 참여기업 대상 성과분석 조사 <(주)리서치랩 '19.11>

○ 사회안전망 강화

- (부실채권 정리) 기보·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

3.3조원 정리(~'21)로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

- (사회안전망 강화) 개인 파산시 압류제외 재산 범위를 확대

(월 150→월 185만원)하여 연간 4만여명의 생활고를 완화('19.3)

* (종전) 900만원(월 150만원x6개월) → (개선) 1,110만원(월 185만원x6개월)

☞ (평가위원)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확대, 사업전환우수사례집 등 다양한 업무활동이 돋보이며, 재도전기업의 경우 매출액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⑤ (Ⅲ-4-⑥) 국제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진출지원

○ 정상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 성과 사업 추진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및 교류 확대

- (북유럽) 중기부가 주도하여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된 북유럽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중심 최초 경제사절단 구성 및 교류행사 개최

* 경제사절단 : 스타트업 53개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(순방 최초)

- (동남아) 태국·미얀마·라오스에 스타트업 동남아 진출확대 및 한류 기반 중소기업 우수제품 진출을 위한 교류행사 개최

- (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) 스타트업/중소기업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대규모 행사 기획, 스타트업 국제기구를 위한 협력 플랫폼 구축

☞ (평가위원) 업무난이도도 높고 추진성과도 우수, 보다 객관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위해 사업성공 건수 등 보조성과지표 개발 필요

⑥ (IV-2-②)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 강화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 경영환경 및 성장기반 조성
 - (매출액 증가점포 비율) 정책자금 수혜업체 79.9%가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, 비수혜업체 51.3% 대비 28.6%p 높은 경영성과를 보임
 - (고용창출) 정책자금 수혜업체의 평균 고용증가율 8.1%, 정책자금 1억원 당 고용창출 인원은 0.47명

우수 사례

- (주)디에스스틸(대표 박용운): 2017~2019년, 3년 간 총 170백만원 정책자금 지원(소공인특화자금)
 - '18년 기준, 전년 대비 매출액이 235%(319백만원→749백만원) 증가하고,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지속 성장 중 (매출 : '18년 7.5억원 → '19년 11.0억원 예상, 고용창출 : 4→7명)



☞ (평가위원) 소상공인의 자금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.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의 자생력·경쟁력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

⑦ (V-2-③) 규제자유특구도입을 통한 신사업 추진환경 조성

- 2차례 특구 지정을 통해 총 1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
 - * [1차] (강원)디지털헬스케어, (대구)스마트웰니스, (전남)e-모빌리티, (충북)스마트안전, (경북)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, (부산)블록체인, (세종)자율주행
 - ** [2차] (광주)무인저속 특장차, (대전)바이오메디칼, (울산)수소그린모빌리티, (전북)친환경자동차, (전남)에너지 신산업, (경남)무인선박, (제주)전기차충전서비스

☞ (평가위원)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사업 추진환경을 조성한 성과가 인정되며,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활력제고 등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장기적 방향 설정 및 역할 수행 필요

⑧ (V-3-⑦)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

-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전부처 90개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부처 및 기재부, 과기부에 참고하도록 통보
 - *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“각 부처는 예산요구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(‘19년 시범실시) 결과를 참고” 조항 추가
- ‘중소기업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제도’ 운용을 통해 무분별한 유사·중복사업 신설 방지 등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
 - * 11개 부처, 69개 사업은 ‘사전협의 완료’, 협의 미완료 사업(4개 부처, 14개 사업)은 ‘조정(안) 심의의결(중소기업정책심의회, ‘19.7.8) → 예산 편성 시 각 부처·기재부에 협의결과 통보
-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운영으로 중소기업 정책 총괄 부서로서 위상 강화
 - *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순위 상승 (13위(5월) → 3위(11월), 뉴시스)

- ☞ (평가위원1)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조정을 위해 타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, 초기작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
- ☞ (평가위원2) 타부처와의 협업이 우수하며, 예산 및 사업조정을 통해 우수사업은 증액하고 미흡사업은 감액하는 정책결정을 도출하는 등 성과

(3) 개선·보완 사항 (미흡 과제 중심)

◆ '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 촉진을 통해 역동적인 시장으로 육성' 등 6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

1 (I-4-⑤) 벤처기업 일자리지원

- (미흡사항) 멘토들의 역량 및 분야별 경험 차이로 인해 개별 멘토링마다 내용 차이 발생
- (개선방안) 선배 CEO 사전간담회를 통해 기본적인 멘토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멘티의 수요내용에 따라 멘토링 계획 수립의 장 마련

☞ (평가위원) 성과지표인 '여성벤처창업교육이수자 창업률'은 과제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져 대안지표 모색 필요, 전체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노력과 성과관리 실적에 보다 비중을 둘 필요

2 (I-5-⑦) 엔젤투자 활성화

- (미흡사항) 엔젤투자액, 엔젤투자자, 전문엔젤 등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의 엔젤투자를 활성화할 필요

< 지역별 엔젤투자 통계 ('19년말 기준) >

구 분	수도권				비수도권 소계 (비중)	합 계
	서울	인천	경기	소계 (비중)		
'18년 엔젤투자액*(억원)	1,803	82	1,505	3,390 (82.7%)	708 (17.3%)	4,098
엔젤투자자(명)	5,695	408	3,400	9,503 (76.3%)	2,955 (23.7%)	12,458
엔젤투자(건)	6,788	416	4,051	11,255 (78.5%)	3,081 (21.5%)	14,336
피투자기업(개사)	317	15	156	488 (72.7%)	183 (27.3%)	671
전문엔젤(명)	101	0	24	125 (87.4%)	18 (12.6%)	143
엔젤클럽(개)	136	2	19	157 (68.6%)	72 (31.4%)	229

* 개인 직접투자액 기준

- (개선방안) 전문엔젤 양성 교육*, 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원** 및 투자설명회(IR)·상담회 등을 위한 지역 엔젤투자 기반 마련

* 일반엔젤 및 예비엔젤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문엔젤 투자의 이해, 조세지원 제도, 투자 성공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전문엔젤투자자로 유입

** 엔젤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약서 작성, 회계·법률 자문 등

☞ (평가위원) 세제 지원 등 제도개선으로 엔젤투자액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해 목표치 적극성이 다소 미흡, 결성 금액보다는 실제투자금액을 제시할 필요

③ (Ⅱ-3-④)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응역량 및 인식 제고

○ (미흡사항) 기술탈취 근절대책 이후 지속 홍보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정책 체감도 저하

* '18년 실태조사 결과, 총6개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55.3%

- 기술탈취근절 대책 이후 행정조사 시행, 기밀유지협약 체결 등 핵심메시지 중심으로 지속 홍보하였으나, 교육·설명회 등을 통한 대면 홍보는 미흡

- 리플렛, 책자 등 안내자료 배포의 전통적 홍보방식과 단발성 홍보에 치중, 중소기업의 정책 체감도 효과 제고에는 한계

* '기술탈취 근절' 키워드를 온·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전달하였으나, 중소기업 스스로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태도 변화에는 어려움

○ (개선방안) 대면 홍보활동 강화 및 홍보방식 다각화

- 특허청, 공정위 등과 지역순회 설명회, 중소기업의 접점인 유관기관·협단체* 등과 연계한 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해 정책체감도 향상

* 테크노파크, 창조경제혁신센터, 중소기업중앙회, 이노비즈협회, 벤처기업협회 등

- SNS 홍보매체 중심의 정책홍보 수단으로 개편하고,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위한 대학생 공식기자단 운영(25명)

* 운영절차 : 모집·선정('20.3) → 발대식('20.4) → 월간활동(취재, 콘텐츠 제작, 기획 회의 등, '20. 4~11) → 결과보고 및 해단식('20.12)

☞ (평가위원1)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비해 소극적인 운영, 국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과 국외 기술유출 차원의 기술보호 등 양방향의 노력 필요

☞ (평가위원2) 연내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개선 필요

4 (Ⅲ-5-⑨)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 확산

- (미흡사항) 최저임금 인상,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 경영환경 급변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악화로 인해 성과공유 확산에 애로 예상
- (개선방안) 성과공유 기업에 대한 정책 우대, 우수기업 발굴을 통한 홍보 및 CEO 교육 등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 확대

- ☞ (평가위원1) 성과지표인 '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 수'는 정책효과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, 보조평가지표 개발 필요
- ☞ (평가위원2) 현재 주력사업인 '성과공유기업 인증기업 수' 등을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,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

5 (Ⅳ-3-④)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 촉진을 통해 역동적인 시장으로 육성

- 공모사업의 절차적인 문제¹⁾, 지자체의 매칭 지방비 예산 확보 절차²⁾ 등에 따라
 - 1) 신청·접수, 서류·현장평가, 선정 순의 절차로 최소 3개월 이상 기간 소요
 - 2) 지자체에서 사업 선정(국비 확보) 후 추경을 통한 매칭 지방비 확보
- 매칭 지방비가 마련되는 6월 이후 실제 재정집행이 이루어져 연례적 실집행이 지연되는 구조·절차적 악순환
- 지자체가 매칭 사업비를 추경이 아닌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'20년 지원시장을 조기 선정('19)

* '20. 1월부터 사업 초기 착수로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및 재정 집행률 제고

< '19~'20년 전통시장·상점가 활성화 지원예산(국비·지방비) 집행시기 비교 >

구 분	기관	예산 확정	국비 교부	실집행	지원대상 신청	지원대상 확정
'19년 예산 편성·집행	정부	'18.12월	'19.5월~			'19. 5월
	시도	'19.6~9월		'19. 7월~	'19. 1월	
'20년 예산 편성·집행	정부	'19.12월	'20.1월~			'19. 9월
	시도	'19.12월		'20. 1월~	'19. 6월	

- ☞ (평가위원1) 평가지표 달성여부에 대한 설명이 누락 또는 부족하여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며, 목표달성도 또한 미흡
- ☞ (평가위원2) 시장바우처지원사업의 경우 'Bottom-Up' 방식 전환의 취지는 좋으나, 특정 소수 시장에 패키지로 집중되는 문제점 발생. 시장별 교육점수 은행제 등을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

⑥ (V-2-②) 지역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

- (미흡사항) 사업지원 시 지역의 여건·특성 반영이 미흡하고,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대표기업 육성 한계
 - 중앙 주도의 획일적 지원방식*으로 산업 위기 등 환경변화 대응 한계 및 지원성과의 지역별·산업별 편차** 존재
 - * (R&D) 2년 이내, 연 2억원 내외 예산 획일적 지원
 - ** (10억원당 사업화매출) 디자인(광주) 58.3억원 > 바이오소재(세종) 0.2억원
 - 고성장기업, 중핵기업은 수도권에 위치하여, 지역의 성장엔진 부족
 - * (가젤기업) 수도권 61.9%(680개) > 비수도권 38.1%(419개)
 - ** (매출 200억이상 기업) 수도권 61.8%(1,012개) > 비수도권 38.2%(626개)
- (개선보완사항) 지역·산업별 특성화 지원을 통한 전략성 강화, 지역기업 생태계를 리드할 '혁신선도기업' 육성을 중심으로 '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개편(안) 마련



☞ (평가위원) 기존 타부처 R&D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중기부만의 정책내용이 부족함. 초점이 중기R&D인지, 지역특화인지, 막대한 지원예산을 지급하는 운영체계가 적절한지, 정책효과는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등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

(4) 평가결과 종합

< 분과별 평가등급 현황 >

구분	1등급 (매우우수)	2등급 (우수)	3등급 (다소우수)	4등급 (보통)	5등급 (다소미흡)	6등급 (미흡)	7등급 (부진)	계
창업 벤처	1	1	-	4	-	1	1	8
기술 혁신	-	1	-	2	-	1	-	4
성장 해외	-	2	3	2	1	1	-	9
소상 상생	-	1	1	1	3	-	1	7
중기 지역	-	2	2	1	1	1	-	7
계	1	7	6	10	5	4	2	35

관리과제명	자체평가결과 (평가등급명)
I-1-① 기술기반 창업기업 육성	4등급 (보통)
I-1-② 창업전문기관 및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창업사업화	1등급 (매우우수)
I-2-③ 예비창업자의 기술 창업 및 글로벌 성장 촉진 도모	4등급 (보통)
I-3-④ 메이커 활성화 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	4등급 (보통)
I-4-⑤ 벤처기업 일자리지원	7등급 (부진)
I-5-⑥ 민간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확산	2등급 (우수)
I-5-⑦ 엔젤투자 활성화	6등급 (미흡)
I-6-⑧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	4등급 (보통)
II-1-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	2등급 (우수)
II-2-② 중소기업 R&D 혁신에 따른 매출확대	4등급 (보통)
II-2-③ 일자리 창출 위주로 R&D 지원	4등급 (보통)
II-3-④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응역량 및 인식 제고	6등급 (미흡)
III-1-① 혁신 중소기업제품의 성장을 위한 판로확대	4등급 (보통)

Ⅲ-2-②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	4등급 (보통)
Ⅲ-3-③ 원활한 구조개선 및 재도전 활성화 지원	2등급 (우수)
Ⅲ-4-④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	3등급 (다소우수)
Ⅲ-4-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	3등급 (다소우수)
Ⅲ-4-⑥ 국제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진출지원	2등급 (우수)
Ⅲ-5-⑦ 우수 인력 양성·공급	3등급 (다소우수)
Ⅲ-5-⑧ 인력유입 여건 조성	5등급 (다소미흡)
Ⅲ-5-⑨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 확산	6등급 (미흡)
Ⅳ-1-①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,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, 생업안전망 구축	5등급 (다소미흡)
Ⅳ-2-②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 강화	2등급 (우수)
Ⅳ-2-③ 맞춤형 지원 및 집적지 활성화로 혁신성장 견인	5등급 (다소미흡)
Ⅳ-3-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 촉진을 통해 역동적인 시장으로 육성	7등급 (부진)
Ⅳ-3-⑤ 협력이익공유제 시범도입 등 공정한 성과공유를 통한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	4등급 (보통)
Ⅳ-3-⑥ 대·중소기업간 합리적 사업영역 조정을 통한 중·소상공인 보호	3등급 (다소우수)
Ⅳ-3-⑦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	5등급 (다소미흡)
Ⅴ-1-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	5등급 (다소미흡)
Ⅴ-2-② 지역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	6등급 (미흡)
Ⅴ-2-③ 규제자유특구도입을 통한 신사업 추진환경 조성	2등급 (우수)
Ⅴ-2-④ 지역특구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성장도모	4등급 (보통)
Ⅴ-3-⑤ 중소기업 관련 통계의 개발,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	3등급 (다소우수)
Ⅴ-3-⑥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	3등급 (다소우수)
Ⅴ-3-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	2등급 (우수)